



# 광양시, 전남 최초 유니세프

##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성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탄력 기대



평균연령 38.9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시가 11일 전남도에서는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말하며, 인증을 위해선 아동을 위한 전담기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아동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등 유니세프의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시는 그동안 전국 최고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인 ‘아동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민선 6기 최우선 역점 과제를 아동에 두고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도시 인프라 분야 등 12개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었다.

그중에서도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지난 2015년 27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창립 지자체)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

화도 조사, 아동권리 지킴이 운영 등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아동권리 보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와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역의 업무협약을 통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광양YMCA와의 협력사업 등 민간이 함께 아동권리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시는 올해부터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등 6개 분야 20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희망도서관’과 전국 최초 어린이 보육재단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아이가 웃어야 미래가 웃는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민선6기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토대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권 기자

## 2017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발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은 2017년 순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집행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순천경실련,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언론, 순천YMCA아이클럽, 순천아이클럽, 순천의료생협)는 지난 2013년부터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니터 단원 모집과 교육을 위해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이어 시민자치학교를 이수한 20명으로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순천시의회 3개의 상임위

(도시건설위, 문화경제위, 행정자치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니터 단원은 상임위별로 1~2명씩 오전 오후 조로 나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각 의원에 대한 평가표와 방청 일지를 작성했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2017년도 행감 모니터에 대해 점수별로 우수 의원 등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전체 총평만 발표하기로 했다.

상임위별로 모니터 단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은 이창용 의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일반의 참여성실과 태도진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전문성 부문의 사전분석, 질의수준, 정책 및 대안성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임위는 저녁7시까지 감사를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성실한 모습은 단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반면 몇몇 의원은 질문과 발

언 내용이 중복되거나 지루한 설명 형으로 시간낭비 사례가 있어 사전에 발언시간 배정과 의원들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부족한 점은 감독하고 검사하는 감사(監査)가 아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가 많았다.

행·의정모니터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 모니터 단원을 양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건강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의회는 늘 시민의 입장에서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건강하고 올바른 견제 역할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 낙안배 동남아 첫 수출 선적

2018년도 대만·베트남 32톤 첫 수출 개시



순천의 수출 주력 과수인 순천 명품 낙안배(품종: 신고)가 2018년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순천낙안배영농조합법인(회장 안정호) 공동선별장에서 배 수출농가, 순천농협, 수출업체, 시 관계자와 함께 명품 낙안배의 첫 수출(대만·베트남, 32톤)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과수인 배 품종 전시 및 시식행사, 선적 테이프 컷팅식, 기념촬영, 공동선별장 시설 둘러보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동남아에서 한국 신선농산물 인기에 힘입어 자체적으로 수출길을 열고 이번 대만과 베트남으로 총 32톤을 수출하게 되었다.

순천낙안배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국제시업 공모로 공동선별장을 건립하고, 201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인 GAP 시설인증을 획득하는 동시에 대만 선과장 수출인증 획득하는 등 낙안배 수출시장을 열기위해 꾸준히 준비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 화순군, 명품 농축산물생산 ‘박차’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 20억원 지원...내달 12일까지 신청



화순군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발굴 등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명품 농축산물생산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등 새로운 농업기술 및 유망작목 현장 신속 확산을 통해 화순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이 추진하는 농촌진흥 사업은 ‘동물복지형 신단계 사육 시설개선’ 등 국비 19개 사업에 6억8천5백만원, ‘달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사업’ 등 도비 11개 사업에

3억9천만원,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재배’ 등 국비 20개 사업에 9억8천만원 등 6개 분야 50개 사업이다.

군은 이와 관련, 2월 12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특히 2개 이상 사업을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보조금 부정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현지조사(2월말경)를 거쳐 3월초 농업신화 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 시동

방희석 사장, 中 투자이행기업 직접 방문 및 투자협약 협의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 이하 공사)는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CEO가 직접 참여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중국 중남부지역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방희석 사장이 직접 중국 현지 투자이행기업을 방문해 광양항 및 배후단지의 장점 등을 소개하고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 사장은 먼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푸드존(Food-Zone)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운남성 소재 커피 원재료 공급업체인 운남메이격지(주)를 방문해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한·중·일 콜드체인 거점 구축을 위해 중국 안후이성 소재 냉동냉장고 업체인 바이란식품

(주)를 방문해 투자협약을 맺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다른 입주이행기업들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지난해 9월 경제청과 공사가 합동으로 중국 지역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투자의행기업을 선정했던 후속 조치로, 이번 방문을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할수록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